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음 5월 21일)

제20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미세먼지 없는 전주의 맑은 하늘



전주지역에 비가 그친 3일 전북도청 옥상에서 바라본 전주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다.

‘지방공휴일’ 제정 가능

지자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지정
 법정공휴일 대상... 정부, 국무회의서 규정안 의결
 축산법 시행 개정안·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처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기념일 중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48개 법정 공휴일이 대상이다.
 정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기준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법이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 기상 높이고 브랜드 가치 올리고’

도,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추진

-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 2023 챔버리 성공 유치 이어
- 2018 전국체전 · 2019 소년체전 · 2020 생활체육대축전
- 2021 프레챔버리 등 열여 · 2022 아태 마스터스는 도전

전북도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추진하면서 전북 기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WTF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시작으로, 올 10월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2019년 전국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을 잇따라 개최한다.
 또한, 작년 7월 유치에 성공한 169개국 5만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챔버리 대회가 2023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며 리허설 격인 프레챔버리는 대회가 열

리는 2023년보다 2년 앞선 2021년 개최될 예정이다.
 사실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대규모 행사는 이미 결정된 상태로, 최근 전북도가 유치도전에 나선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까지 개최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으로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된다.
 전북도가 가장 먼저 유치 도전에 나선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올해 제1회 대회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페낭과 비교할 때 전북도의 모든 여건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전북도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로 마스터스 대회 국제사무국 관계자가 6월 16일부터 3일간 전북도를 둘러보고 경기장 시설은 물론 문화와 음식, 관광이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3일 간 부회의에서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는 숙박, 음식 및 지역 내 소비 증가를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전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북도민들의 기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 선정

전북지역에서 유일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익산시가 우선 선정됐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및 허가, 고용 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각각의 정부기관을 방문하여야 제공받았던 민원서비스를 한곳에서 체류자격 변경, 고용상담, 외국인 인력 상담 등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전북지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게 신청해 현장실사,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고, 익산시에 다문화플러스센터가 개소하면 익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 7,560명은 물론 전북도 외국인 4만5,836명 중 서부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2만6,157명이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며 사통발달의 교통접근이 쉬운 익산시 3층에 설치하고 총 5개 기관이 입주하여 ▲익산시는 센터운영 총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고용관련 ▲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는 체불임금 등 근로자 상담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 ▲통번역서비스를 위한 상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모국을 떠나와 이국땅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매일 INDEX

2면 - 중부세 개편 권고안 '확장'... 세율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연 5%씩 인상

5면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취임...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 제시하겠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